

2019.02. Vol. 202

Open Doors

박해와 선교현장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Yellow ID

@spendoors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친구추가하세요

TELLA



OpenDoors

Sa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하나님의 아들

이종만 목사(오픈도어 사무총장)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와 그녀의 기도로 탄생한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권이 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전환기에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구약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

한나는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기도를 드리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 하겠나이다” (삼상 1:11).

얼핏 전체 이야기를 보면 자식 없던 여인이 서원기도를 통해서 자식 없는 설움과 한을 푸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어차피 자식을 못 낳을 팔자라면, 서원이란도 해서 아들을 낳아 보자!”

하지만 한나와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에는 이와 다른 더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왕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으로 펼쳐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들이라는 표현은 남녀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대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다.

한나의 이야기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들이 없어 고통하는 한나는 곧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없어서 고통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다.

한나가 성전에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아들이 없어 고통하는 자신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부재로 인해 고통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로 당신의 아들 삼으소서!”

결론적으로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탄생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현현에 대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는 성경구절이 로마서에 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롬 8:19).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피조물까지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간곡한 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가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04



06



14



16



18



22

04 북한 선교 현장_나의 출애굽기IX

06 박해와 선교 현장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14 2019 박해지도 신청

16 오픈도어 사역
치유훈련참여 이야기 : 이란(Iran)

18 오픈도어 뉴스
박해뉴스: 콜롬비아(Colombia)

20 개발사무실 사역자 모집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22 2019북한선교학교

23 북한캠페인

OpenDoors 2019년02월호 | 통권202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박종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오정호, 이동현, 배춘섭, 양성찬,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_오현경 간사
북한선교_제나, 이다니엘, 리디아, 나오미, 레아, 수지 간사
발행처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596-3171 / 070-7522-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_이종만 목사

< 후원 계좌 >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IX

드보라



새롭게 남편 된 사람은 내가 왔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다. 동네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황망하고 창피해서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었다. 잔치가 어느 정도 끝날 때쯤 그렇게 쭈그리고 있는 나를 남편의 형님과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일으켰다. 남편의 어머니는 다리를 못쓰시고 운신을 잘 하지 못하는 분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쳐서 그분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내 운명은 왜 이리도 꼬이는지...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다짜고짜 나 좀 보내 달라고 울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나를 끌어 안아주면서 앞으로 잘 해주겠다고 하는데, 죽은 남편 얼굴과 비교되면서 이 아바이 같은 사람과 어찌 살지 갑갑하기만 했다. 나를 돈을 주고 사오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성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북에서 내 남편이 단오날 죽었다고 하니깐 단오 때 적당한 산에 가서 제사도 지내주었다. 생각해보면 보통 심성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나는 왜 마음에 없는 사람하고 살아야 하는지 원통하기만 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그 시골 마을에 또래끼리 모이는 협동조합 그루빠가 연령별로 있었는데 그 중에 술 잘 먹는 조직에서 같이

술을 먹었다. 나는 원래 소주는 못 먹고 맥주만 어쩌다가 먹는 정도로 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맑은 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자겠어서 술을 따라 마셨다. 중국 소주가 너무 독해서 한 잔 따라서 먹고는 뒤이어 냉수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술을 먹었다. 그렇게 항상 취해있었다.

나는 그 집의 막내 며느리였다. 시어머니도 우리와 함께 지내셨다.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대소변도 누군가 받아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며느리 된 나의 몫이었다. 이렇게만 말하면 누군가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맘에 없는 그곳 생활 중에 시어머니를 많이 의지해서 그랬는지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이 할만했다. 나는 북에 있을 때부터 노인을 좋아하고 잘 섬겼다. 남편과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시어머니지만 나에게게는 할머니 같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할매 할매’ 하고 부르면서 내 이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볼 때 마다 “불쌍한 것... 너는 뭘 죄를 지었다고 이리 기구한 인생을 사냐” 하시며 안타까워하셨다. 시어머니를 통해 허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었다.

당시 그 집 맏시형은 촌의 촌장이었는데 촌을 살리기 위해 돈을 벌자 해서 통나무를 배어 팔다가 법에 걸려서 감옥 생활을 했다. 몇 년 후 감옥에서 나온 시형은 어머니는 맏아들이랑 같이 있어야 한다고 시어머니를 모셔가려고 했다. 맏시형은 성격이 좀 이상해서 남을 잘 깔보고 가족 욕을 했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았고 시어머니도 안 가겠다고 하셨지만 맏시형은 마을 주민들이 욕한다고 억지로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

시어머니께서 큰 집으로 가시자 남편의 태도가 변했다. 그 전에는 내가 술을 많이 먹어도 화를 내려다가 참더니 이제는 술을 먹고 오면 크게 화를 내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어머니 눈치를 보며 자제하던 것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나도 지지 않고 같이 화를 내고 싸웠다. 술도 계속 마셨다. 혼자서도 마시고 그루빠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가서 또 실컷 밤새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면서 현실을 잊고, 또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동정도 받고 또 술을 마셨다.

이렇게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나의 신세 한탄을 들어주던 마을 사람들은 내 처지를 동정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북한의 실정을 욕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 댄에는 무슨 애국심인지 아니면 너무 북에서 세뇌 교육을 잘 받았던 건지 그 말에 괜히 발끈해서 일장 연설을 하곤 했다. 이 모든 사단이 바로 미제 도당과 남조선 승냥이 때문이며 김정일 장군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며 밤잠 못 주무신다고 더 길길이 외쳤다. 미

제 앞잡이 놈들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고 악다구니를 쓰며 사상 무장을 막 외치는 나의 돌변한 모습에 주민들은 내가 하도 말을 잘해서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시장 감이라고 놀리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럽다. 출애굽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로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내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철없던 모습을 떠올린다. (계속)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World Watch List)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경향

지난 5년 동안 북한만이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World Watch List)에서 “극심한” 박해의 영역 속에 있었다. 하지만 2018년처럼 2019년의 보고서에는 11개 국가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12년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해서 2016년 이후로 박해 순위는 더 심화되는 기독교 박해 상황을 해마다 보여주고 있다. 부분적으로 디지털 혁신에 의한 지구촌 자료 수집이 용이해져 더 구체적인 자료들의 수집이 가능해진 것이 부분적 이유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은 각국의 정부를 감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금년에 많은 나라들이 “폭력”의 영역에서 뚜렷한 상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박해 수치는 상승했다.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것은 죽음과 파괴로 치닫는 폭력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차별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법적이며 그리고 사회적인 억압 구조가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경향 1

국가 권위주의(State Authoritarianism)의 확산

북한은 18년 연속으로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World Watch List)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 어떤 다른 신념과 종교를 최고 영도자에 대한 정치적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는 중국(27위)이다. “종교사무조례”(Regulations for Religious Affairs)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종교적 활동을 금지시켰고, 이에 따라 유치원과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고, 여름성경학교가 금지되었으며 교회는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회 출입 금지에 동의하고 서약해야 했다. 어느 정부의 보고서는 “적극적 지도”를 통해서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당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이다. 종교의 중국화는 러시아 연방(41위)나 베트남(20위) 혹



은 라오스(19위)와 같은 다른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종교를 안정화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이다.

궁극적으로 시진핑은 종교를 중국다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다양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교회들은 이러한 압력에 직면해서 예배 전에 국가를 부르고 십자가의 깃발보다는 국가의 깃발 아래 모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가톨릭교회들은 예수성화대신에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으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교회 모임은 여전히 방해받고 있는데, 특별히 중부에 위치한 농촌 Henan(Henan)성에서 60%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동부 해안 저장(Zhejiang)성의 교회들의 십자가는 철거되었으며 크기와 위치 그리고 색깔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가 통제하는 “삼자애국운동”(Three-Self Patriotic Movement)에 등록된 교회들은 감시카메라 설치 등의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9월에 1천 5백 명이 모이는 베이징 최대의 가정교회인 시온교회가 카메라 설치에 반대하면서 폐쇄되었다.

전자상거래에서 성경이 최근에 사라졌다. 이것은 성경이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되거나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국가가 승인한 교회의 서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비공식적인 가정교회들은 자신들의 통로를 통해서 성경을 판매하고 있다.

2017-2018년에 걸쳐 선교활동을 하거나 가정교회를 돕는다고 여겨지는 모든 외국인들은 중국 전역에서 추



방을 강요당했다. 최근 위그르 무슬림이 45%에 달하는 신장(Xinjiang) 자치구에 재교육 캠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무슬림 배경의 약 6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 캠프에 끌려갔고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유사한 국가 권위주의는 베트남(20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75년 공산화 정권이 들어선 이후 종교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Law on Belief and Religion)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베트남 역시 종교를 국가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법률은 “종교사무 위원회”(Committee on Religious Affairs)라는 매우 관료적인 기관을 탄생시켰다. 이 기관의 역할은 내부 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국가 권위주의는 미얀마(18위)의 상황에서 민족주의와 결합하고 있다. 10만 명 이상으로 다수의 부족인 카렌(the Karen)족은 국경을 넘어 태국의 난민캠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 동안 수천 명이 피살되었으며 최소 12만 명은 기독교인이 밀집해 있는 카친(Kachin) 주로 피신했다. 새로운 교회의 설립은 허가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교회와

선교사와 교사 그리고 목회자는 조사를 받으며, 외국인 사역은 금지되고 이런 연관성을 가진 활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경향 2

초강력 민족주의(Ultra Nationalism)에 기초한 정부의 기독교 배척

민족주의가 점차 강화되면서 국수주의 태도를 취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수주의 체제에서 선량한 소수자 그룹들은 위협적 존재로 여겨질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나라를 떠나 피신해야 해야 할만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소수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과거 식민시대의 안 좋은 역사 때문인지) 정부와 사회로부터 ‘서양인’이나 ‘이방인’이라고 공격을 당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많은 경우 법은 증가 추세에 있는 국수주의의 경향을 소중히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는 인도인민당(BJP)이 집권한 이래 점점 더 극단적인 과격 힌두주의의 경향을 촉진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힌두교도가 되어야 한다고 할 정



도다.

29개 주 중에서 8개 주는 반개종법을 통과시켰다. 반개종법에 의하면 개종하려는 사람은 지역 관청에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정부의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2개 주는 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인도에서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운 학교, 병원, 고아원, 자선기관 그리고 교회와 같은 소위 ‘외국’ 기관들은 종종 공격 대상이나 폐쇄 대상이 되고 있다.

2014년 5월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강도는 더욱 거세졌다. 매년 폭력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경찰이나 지방 관리와 같은 정부 기관이 폭도가 일으킨 폭력 사고에 대해서 무처별로 다루기 때문이다.

힌두 과격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폭행하고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최근의 추세는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심지어 어린 자녀들을 협박하고 강간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여성과 자녀들을 직접 겨냥한다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다.

기독교인의 숫적 증가와 부족 마을 지역 내에서의 강한 존재감 때문에 힌두 과격분자들은 기독교인을 나라의 위협 요소로 본다. 오래된 카스트 제도에 근거한 차별정책 역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인도 전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대다수의 개종자들이 낮은 카스트나 불가촉민(Untouchable: 카스트보다 낮은 천민)이기 때문이다.

근래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건만 해도 최소 12,500명의 기독교인과 100여 개의 교회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적어도 200명이 단지 신앙의 이유만으로 체포되었고,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수많은

은 사건들이 공식적으로 접수 되지 않아서 진짜로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국민 대다수가 힌두교도(네팔)이거나 불교도(부탄)인 이웃국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가적 종교에 호소하는 것이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신장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동안 국수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인 브런슨 목사의 경우가 뉴스 1면을 장식한 것처럼, 에르도안 정부는 수천

명 정도 되는 터키의 기독교 개종자들을 적극적으로 비난했다. 이들 기독교인들을 터키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복음주의적 시온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정책은 터키 사회 내의 민족주의적 요소에 활력을 넣어주었다. 이는 곧 아르메니아 정교나 그리스 정교가 아닌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경향 3

중동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과격 이슬람 세력의 확산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의 세 번째 경향은 중동 지역의 이슬람 무장세력(IS)의 폭력과 여타의 세력들이 퇴패하면서 자신들의 근거지를 중동에서 상실하는 동안에, 무장 군인들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통치권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리비아(4위)는 심각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주로 사하라 사막과 그 이남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그들 중 다수는 기독교인들로서 유럽으로 난민 이주가 어려워지면서 덧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예멘(8위)에서 추방되고 피난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로서 도착화되고 성장하는 교회를 남기고 떠났다. 전문가들이 예상하

는 것처럼 내전이 교회를 해체시키지는 못할 것이며, 기근의 상황에서도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겠지만 극도의 위협에 처해 있다.

높은 수준의 박해 지수(41점 이상)를 보여주는 국가들 가운데 50위권 밖에 있는 23개 국가에서 18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모로코(51위), 지부티(53위), 콩고(54위), 카메룬(56위), 탄자니아(57위), 니제르(58위), 차드(60위), 부르키나파소(61위), 우간다(62위), 기니아(63위), 남수단(64위), 모잠비크(65위), 감비아(66위), 아이보리코스트(67위), 부룬디(68위), 앙골라(69위), 토고(70위), 르완다(73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유약한 정부, 빈곤, 과격파 이슬람 세력의 점진적인 연합으로 기인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불안정, 부패, 빈곤, 실업 그리고 정부의 무능력은 기독교 박해의 동력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정부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인종적 혹은 정치적 연합으로 인해 결탁하기 때문이다. 연속되는 구조적 취약성의 축적이 주는 효과는 이 지역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확연한 박해의 형태로 나타난다.

리비아의 몰락은 혼란을 틈타 무기를 이 지역에 대량으로 공급하게 했으며, 범죄 조직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을 노예무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점차 정교해지고 조직화되는 범죄와 마약 카르텔은 사하라

는 것처럼 내전이 교회를 해체시키지는 못할 것이며, 기근의 상황에서도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겠지만 극도의 위협에 처해 있다.

높은 수준의 박해 지수(41점 이상)를 보여주는 국가들 가운데 50위권 밖에 있는 23개 국가에서 18개 국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한 국가들이다. 모로코(51위), 지부티(53위), 콩고(54위), 카메룬(56위), 탄자니아(57위), 니제르(58위), 차드(60위), 부르키나파소(61위), 우간다(62위), 기니아(63위), 남수단(64위), 모잠비크(65위), 감비아(66위), 아이보리코스트(67위), 부룬디(68위), 앙골라(69위), 토고(70위), 르완다(73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유약한 정부, 빈곤, 과격파 이슬람 세력의 점진적인 연합으로 기인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불안정, 부패, 빈곤, 실업 그리고 정부의 무능력은 기독교 박해의 동력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정부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인종적 혹은 정치적 연합으로 인해 결탁하기 때문이다. 연속되는 구조적 취약성의 축적이 주는 효과는 이 지역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확연한 박해의 형태로 나타난다. 리비아의 몰락은 혼란을 틈타 무기를 이 지역에 대량으로 공급하게 했으며, 범죄 조직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을 노예무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점차 정교해지고 조직화되는 범죄와 마약 카르텔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약 30개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일부의 국가에서 일부 무장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기독교 구호단체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세력인 보코 하람의 폭력성은 차드, 니제르, 중앙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코 하람은 끊임없이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12개 주는 샤리아법을 시행하여 통치하고 있어서 헌법이 규정하고 무슬림들이 받는 권리와 기회 그리고 보호를 기독교인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직업을 가질 기회 등을 잃기도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부 나이지리아를 무슬림과 기독교인으로 나누는 구분선은 기후 변화와 사막화 그리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발생한 토지와 자원에 대한 싸움을 의미했다. 이 구분선인 “미들 벨트”(Middle Belt)에서의 갈등은 다수가 무슬림 유목민인 풀라니족과 토착화된 기독교인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으로서 이 지역 기독교인들이 최고 수준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폭력 점수로만 나이지리아는 파키스탄과 함께 최고의 순위에 올라있다.

AK 소총의 증가와 중무장한 무기들, 그리고 2018년

10월 조스(Jos) 외각 지역에서 일어난 일가족 몰살과 같은 사건은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공격들이 인종과 종교청소를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희생자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에 의해서만 확인되고 있다.

2018년 1분기 동안에 지역 공동체에 대한 풀라니 무슬림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아다마와(Adamawa), 베누(Benue), 남부 카두나(southern Kaduna), 코기(Kogi), 나사라와(Nasarawa), 플라투(Plateau)와 타바라(Taraba) 주에서 1,061명이 희생되었다. 남부 지역에서는 17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동시에 풀라니 족에 대한 공격과 지역 공동체의 공격으로 인해 61명이 희생되었다. 그중 두 번의 공격은 남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의 아프리카 담당 분석가는, “이슬람 무장세력들은 현존하는 정체성에 기초한 갈등을 도구화해서 자신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며, 자신들이 제기하는 지구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평가한다. 이런 국가에서 기독교 박해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의미한다. 콩고(54위), 부르키나파소(61위), 모잠비크(65위)가 해당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정치적, 종교적 갈등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 “2019세계기독교 박해보고서” (World Watch List) 주요 내용

북한: 올해 역시 2002년부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작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북한의 20만~40만명 가량의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중 5만~7만명이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비아: 2018년 7위를 기록했으나

올해조사에서는 4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리비아는 여전히 취약 국가로 여겨진다. 유럽 연합이 난민들의 주된 탈출 경로 중 하나인 지중해를 통해 국경선을 넘는 경로를 더 엄격히 제한한 이후로 사하라 이남에서만 약 2만명의 기독교인들이 리비아에 발이 묶이게 되었다.

이들은 억압과 폭력에 더욱 취약하다. 믿을 만한 소식에 따르면 최소 10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피살되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노예화, 각종 학대 및 강간이 자행되고 있다. 소수의 리비아인들만 기독교인이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수반한다.

인도: 2018년 11위에서 올해 10위로 그 순위가 상승했다.

힌두교 기반의 민족주의 집권 정당인 인도 인민당(BJP)은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주의회 등 지방 선거에서 승리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올해 우타라칸드 주에서 개종을 제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현재 29개 주 중 8개 주에서 통과되었다. 2개 주에서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민족주의 무장 힌두 단체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이방 종교로 여기며 인도인임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가 힌두교라고 생각한다. 폭도들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여 부상 및 사망에 이르게 한다.

또한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강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경찰에 보고하면 오히려 힌두

교인들을 강압적으로 개종시킨 거짓 혐의로 기소된다. 인도의 언론에서 이와 같은 거짓 혐의가 종종 잘못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얀마: 2018년 24위에서 2019년 18위로 상승

미얀마 전체 인구의 8%를 구성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400만 명 이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인 85%가 카친(kachin) 주와 북부 산(Shan) 주에 거주하고 있다. 두 곳 모두 중국 국경 지역이다. 2018년 전 세계가 로힝야족 핍박에 주목하는 동안, 기독교 소수 민족인 카렌(Karen) 족, 친(Chin) 족, 카친(Kachin) 족을 포함한 종족과 부족 간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최소 15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11년 전투로 인해 난민 신세가 되었으나, 미얀마 군대는 국제 원조 물품 수송을 막았고 유엔마저 접근이 거부당했다. 당국의 주장은 “미얀마인이 된다는 것은 불교신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부 산 주에서 중국 지원을 받는 반군 세력 “연합과 국가군대”는 교회 12곳을 폐쇄 조치했으며 2018년 9월에 12명의 신자들을 구금한 후 추방시켰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18년 35위에서 2019년 21위로 상승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약 십여 개의 무장 단체가 전체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무수히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취약하고 불안한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3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도움과 원조가 필요하지만 국제 구호 단체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이다. 자국 내 가톨릭과 개신교, 이슬람 지도자들은 종교로 인한 갈등은 없다고 부인하지만 종교 간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및 신앙과 관련된 개인과 공동체를 목표로 한 수많은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알제리: 2018년 42위에서 2019년 22위로 상승
2018년~2019년 1년 사이 알제리의 박해지수가 크게

증가했다. 알제리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으나, 최소 교회 6곳이 강제로 폐쇄 당했고, 12개의 교회는 폐쇄 명령을 받았다. 알제리 개신교는 1974년부터 인정을 받아 모든 법률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인 지위를 얻지 못했다.

개신교 측은 예배 장소에 대한 규제 완화와 반개종법 중지, 기독교 서적 수입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과 핍박 받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2018년 43위에서 2019년 27위로 상승

약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교회는 8천 9백만 명의 당원이 있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사회

세력이다.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몇몇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 중 약 절반이 핍박을 경험했으며, 작년 한 해에는 핍박받은 신자들이 약 20%에 달했다. 2018년 2월 1일 시행된 새로운 종교 규칙은 “시민들의 종교 신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제시하고 종교 활동에 대한 행정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들은 1976년 끝난 문화대혁명 이후 13년간 가장 억압적인 것이며, 온라인에서 종교 표현과 개종에 대한 새로운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아닌 공산당이 새로운 법 시행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사항은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겐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2018년 54위에서 2019년 41위로 상승

러시아 정부는 전체 인구 중 약 2%에 해당하는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를 반-러시아, 즉 서구의 스파이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독교 공동체들의 활동은 국가 정보기관 또는 경찰의 감시 대상이다.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 기간인 지난해 2월 다게스탄(Dagestan)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발생한 공격으로 인해 성도 5명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으며, 5월에는 체첸 공화국에서 1명이 사망했고, 교회건물이

파괴되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지역에서 비-동방정교회 신자들 또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핍박의 주요인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한 후, 종교 기관의 의무적인 등록을 시행하면서부터 이 지역의 비-동방정교회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라크: 2018년 8위에서 2019년 13위로 하락

IS가 차지하던 영토에서 퇴패한 후,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 특히 모술(Mosul) 니네베(Nineveh, 니느웨[성경]) 지역에서는 교회를 재건하고 정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핍박의 종결을 의미하진 않는다. 소수 종교 집단인 기독교인은 괴롭힘과 차별 등 정신적, 신체적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

▶ 2019 세계 기독교 폭력 보고

(1) 상위 50위 국가(1위-50위)

폭력 유형	2019 보고서	2018 보고서
1 신앙으로 희생된 기독교인들	4,136	2,782
2 파괴된 교회들과 기독교 건물들	1,266	622
3 재판 없이 체포되거나 투옥된 기독교인들	2,625	1,760

(2) 박해 관찰 국가(51-73위)

폭력 유형	2019 보고서	2018 보고서
1 신앙으로 희생된 기독교인들	147	247
2 파괴된 교회들과 기독교 건물들	201	33
3 재판 없이 체포되거나 투옥된 기독교인들	502	140



세계기독교박해순위
WORLD WATCH LIST
2019

2019년 세계 박해지도를
신청해주세요.

전화: 02)596-3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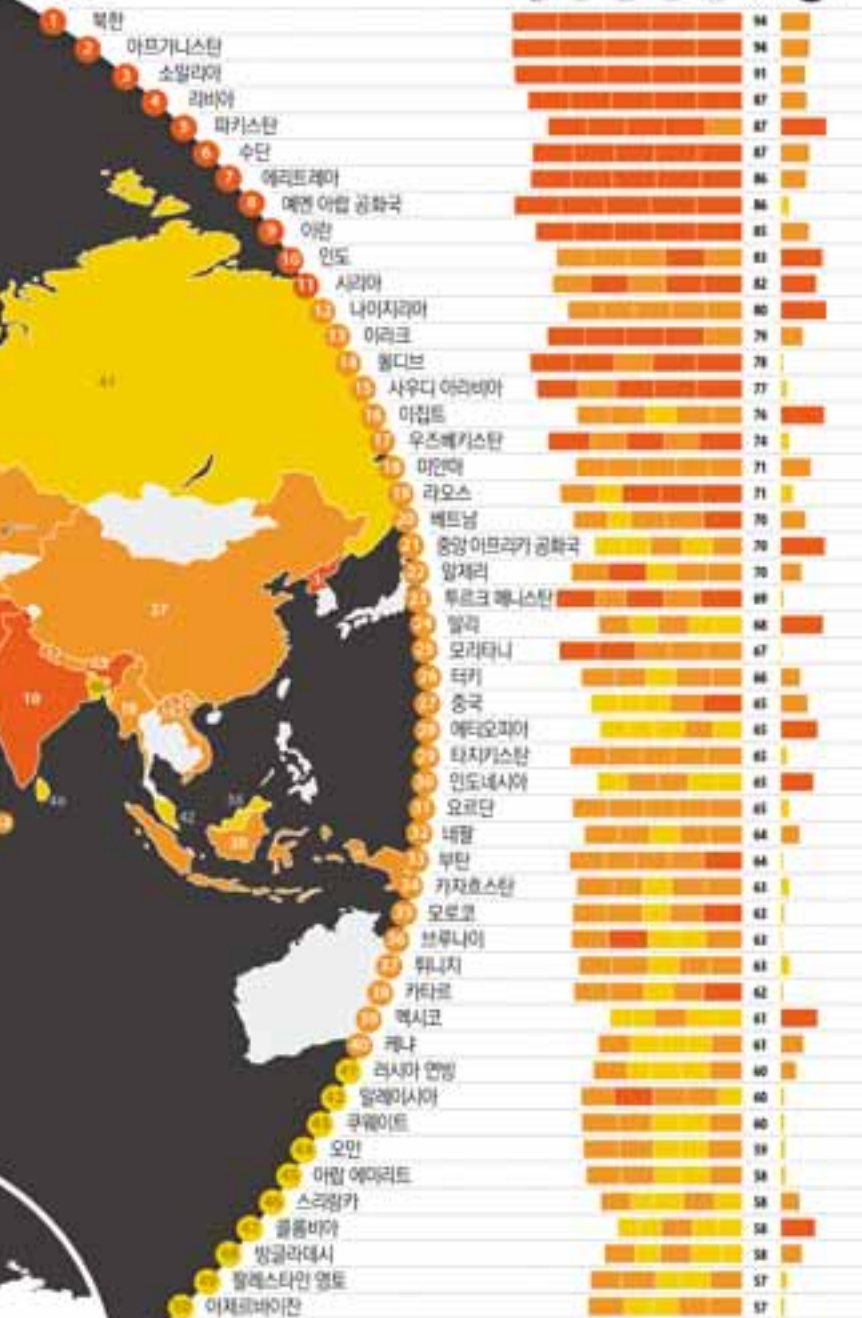
메일: odsk@opendoors.or.kr

필요한 사이즈와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국2절, A4사이즈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동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070-7522-3171 | odsk@opendoors.or.kr
www.opendoors.or.kr | <https://www.facebook.com/opendoorsko>

박해순위

전체 점수



국가별
최고점수 = 16.7

교회영역
최고점수 = 16.7

폭력
폭력에 대한 증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의
정도를 나타낸다.

폭력
최고점수 = 16.7

최고 박해 10개국

최고 폭력 10개국

박해 최고점수 = 83.3
+
폭력 최고점수 = 16.7
= 순위 #
최고점수 = 100

높음 매우높음 극심함 박해정도

이란 감옥에 투옥되었던 신자들의 치유훈련 참여 이야기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한 30명이 넘는 신자들이 올 초에 터키에서 이루어진 트라우마 치유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훈련이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기 위해 3명의 신자들과 만났습니다

사만(Saman)은 가정교회 리더였으며 지금은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터키에서 하나님께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이란으로 돌아가서 쓰일 것 같다고 하였다. 그는 이번 훈련이 긴 쉼의 시간을 주었고, 훈련 가운데 만난 목사님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볼 때 이전보다 강해 보인다는 말을 한다. 왜냐하면 그는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기 때문일 것이다.

사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한다. 터키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서구 사람들이 바쁜 삶 가운데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갖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는 이것이야말로 더 원치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만은 이란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면 재판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만 생각하면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런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생각하

면 그럴 수가 없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터키에서의 시간을 나중에 이란에 돌아갔을 때 소중한 시간으로 사용하시리라 생각된다고 하였다.



와히드(Wahid)는 예전에 가정교회 리더였고, 지금은 200명의 신자가 모이는 교회의 목사이다. 훈련을 통해 더 강한 리더로 성장했음을 고백하였다. 그는 이

번 훈련이 큰 기쁨이었고, 감옥 수감 경험자로서 외로움과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수감 중인 자신의 상황을 전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더 강한 척을 하려는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훈련 가운데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울었지만 그와 더불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수감 생활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힘든 과정이다. 어떤 상처들은 치유되었지만 다른 상처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을 통해 그는 강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모타바(Mojtaba)는 예전에 가정교회 리더였으며 지금은 터키에서 페르시아어를 구사하는 신자들의 상담자로 섬기고 있다. 그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자신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 지에 대해 배웠다고 한다. 이번 훈련이 그에게는 치유의 시작점이었고, 하루하루 자신의 상처들은 치유되어 갔다고 말한다.

감옥에서 나온 뒤로 모타바는 그곳에서의 기억으로 인해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고통을 겪었다. 지금은 고통이 사라졌고 현재 터키에서 신자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이 일들은 많은 감정들이 포함되는 시간이었다. “훈련을 통해 저는 자신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습니다. 이전에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은 그들의 문제로 나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것은 그들과의 상담 과정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어려운 교회의 상황에서도 상담을 건강하게 진행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어지러움 증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잠잠하라, 내가 함

께할 것이다’ 라고 일깨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삶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타인이 저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생활은 저의 믿음을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 보안상의 이유로 사만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다.

열명이 넘는 신자들이 신앙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 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의 간증들이 들려오고, 동전의 양면처럼 자신의 힘든 기억들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더 견고할 것이다.





콜롬비아의 여성들이 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받다



콜롬비아의 기독교인 여성들은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된 범죄 조직과 사회 정치적인 관습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근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최근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서 보고된 내용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인, 특히 여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8년 10월의 보고서는 토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

종할 경우 여성은 더욱 위험할 수 있음을 또한 시사한다.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토착 종교를 거절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토착민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박해 보고서는 전한다. “2018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기독교인들이 마약 카르텔이나 반체제 게릴라 군사

들과 같은 조직에게 지속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도 핍박을 받는다.

“토착민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지역주민들에게 전파하면서 토착민들의 영토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토착민들의 세속주의적인 사상이 자기 지역에 널리 퍼지게 하려고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담론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협박하는 폭력과 위협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인민부대와의 평화 협정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게릴라나 무장단체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들은 다른 범죄조직이나 마약 카르텔과 함께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그 지역을 점령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있다.

“기독교인들은 종종 폭력에 처하거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혹은 무장단체나 마약 카르텔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혹은 세금을 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의 기독교인 지도자나 성직자들이 살해되었고 특히나 정부의 영향력이 미미한 곳에서 그러한 일들은 비밀비재한 실정이다. 수많은 인구 중 오직 일부의 기독교인 지도자들만이 무장단체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박해 보고서는 전한다.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이 확산되다

콜롬비아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시골 지역에 사는지 도시에 사는지에 따라 혹은 어느 종족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 혹은 빈부격차나 학벌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오픈도어 조사는 특히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 어떠한 탄압보다도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엄청난 추방과 갈등이 수년간 지속된 분쟁지역에서 여성들은 더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으로 평화조약 이후로 지금껏 7,671,124명의 사람들이 무장단



체나 범죄 조직에 의해 추방되었고 이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추방된 콜롬비아인 가운데 80%가 여성들과 아이들이라는 사실이다. 박해 보고서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은 그저 불법 무장단체나 마약 카르텔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밀매나 인신매매 단체 심지어 국가 안전 부대 등도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에 팽배해진 부정부패뿐 아니라 토착민이나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 등 소수 민족들도 추가적으로 이들을 괴롭히는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쟁 지역에서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막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마실 물을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자원들의 접근조차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독교 여성들은 또한 사회적으로 콜롬비아에 만연된 태도와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박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 사역이 범죄조직과 무장단체에 취약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치 문제나 사회적 조직과 평화적 노력 등에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여론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성들을 돕는 기독교인 여성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업무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교회 개발 및 정보 담당자 모집

주요업무

교회 개발(교회 컨택 및 면담, 방문 설교 및 후원 교회 모집 등)
정보 제공(소식지에 게재할 현장 자료 선별 및 온라인 홍보 등)

지원자격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Div)를 받은 분
영어 독해와 간단한 회화가 가능하신 분
교회 개발에 은사와 열정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이벤트 및 공지사항-오픈도어 공지사항 참조)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면접시 지참)

제출처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우 편: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기 간: 2019년 2월 8일까지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세요!

박해 순위 50개 국가의 총인구는 약 48억9천만 명,
이중 기독교 인구는 약 6억5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독교인들 중 33%인 약 2억1,500만 명이
신앙 때문에 높은, 또는 극단적 수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박해와 관련한
강의나 설교를 원하시는 단체, 교회는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요청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에서 상단 '오픈도어참여' 클릭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오픈도어
박해퍼즐

	1			2			3
5		7				4	
6							
					10		
	8		11				
	9						

가로열쇠

- '치료의 하나님'이란 뜻. (초성 : ㅇㅎㅇㄹㅇ) (출15:26)
- OO,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6:1-4)
- 로마서에 소개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OOO 사람 시몬의 아들이며, 아내이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인물이다. (막15:21)
- 복 있는 사람. "의를 위하여 OO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5:10-12)
- 고대 이집트인 애굽의 최고 통치자를 일컫는 말.
- 독일의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에 반기를 들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파했다. 작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해였다.

세로열쇠

- 밋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아들이며, 리브가의 오라비이다. 레아와 라헬 두 딸을 두었다. (창28:5)
-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양이나 염소 같은 희생제물을 태워 그 향기로 드리는 제사 (레4:1-5:13)
- 낙엽 작은키나무이며, 4월 연홍색 꽃을 피운다. 열매는 둥근 핵과이며 7월 노란색으로 익는다. 아론의 지팡이가 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민17:1-10)
- 골로새인 빌레몬의 종으로 주인에게 죄를 짓고 로마에 도망하여 있는 중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신자가 되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두기고와 이 사람편에 보내었다. (골4:7-9)
-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일곱째 재앙. 이것이 애굽의 모든 것을 찢으니 사람과 곡식, 가축이 큰 피해를 입었다. (출9:13-26)
- 지중해 연안의 습지에서 무리지어 자란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식물 줄기의 껍질을 벗겨 엮어 말려 종이로 만들어 사용했다. 영어 bible의 어원이기도 하다.

□ 지난호 정답 □

			옴		가	나	안
사	브	낫	바	네	아		
	엘				스	바	냐
	라		두			드	
	헤		아	굴		랍	비
	로		디			빔	
	이	스	라	엘			
				리	브	가	

□ 지난달 당첨자 □

1월호 당첨자

박*양 (4039), 이*애 (8344), 이*혜 (9638)님 축하드립니다!

메일로 정답과 상품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 응모하세요.
3명을 추천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odsk@opendoors.or.kr (2019년 02월 10일까지)

NK mission
school

한국 오픈도어 2019

북한 선교 학교

일시 2019년 4월 1일 ~ 7월 22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장소 생명나래교회
(사당역 6번 출구 앞)

강의 구성 총 3학기, 학기당 5강 (총 15강)

- 1학기 북한에 대한 이해
 - 북한 정치, 경제, 사회 등 북한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
- 2학기 북한에 대한 선교적 접근
 - 탈북민 사역, 인권 문제, 인도적 지원 활동 등 참여 가능한 다양한 이슈 탐구
- 3학기 북한 선교의 실제
 - 북한 선교 현장 및 실제적인 선교사역의 실제 나눔

등록 온라인 접수 (3월 중) 및 오프라인 현장접수 (1-2주차)

회비 학기당 5만원 (온라인 접수시 할인 적용)

문의 -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전화: 010-5107-8448 (다니엘 간사)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을 섬기는 후원자입니다



세계기독교박해순위(World Watch List)에서 북한은 18년 연속으로 1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또한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여정을 걷는 북한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영광의 여정을 기꺼이 걷고 있는 북한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다가 갈 것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호,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9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며...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